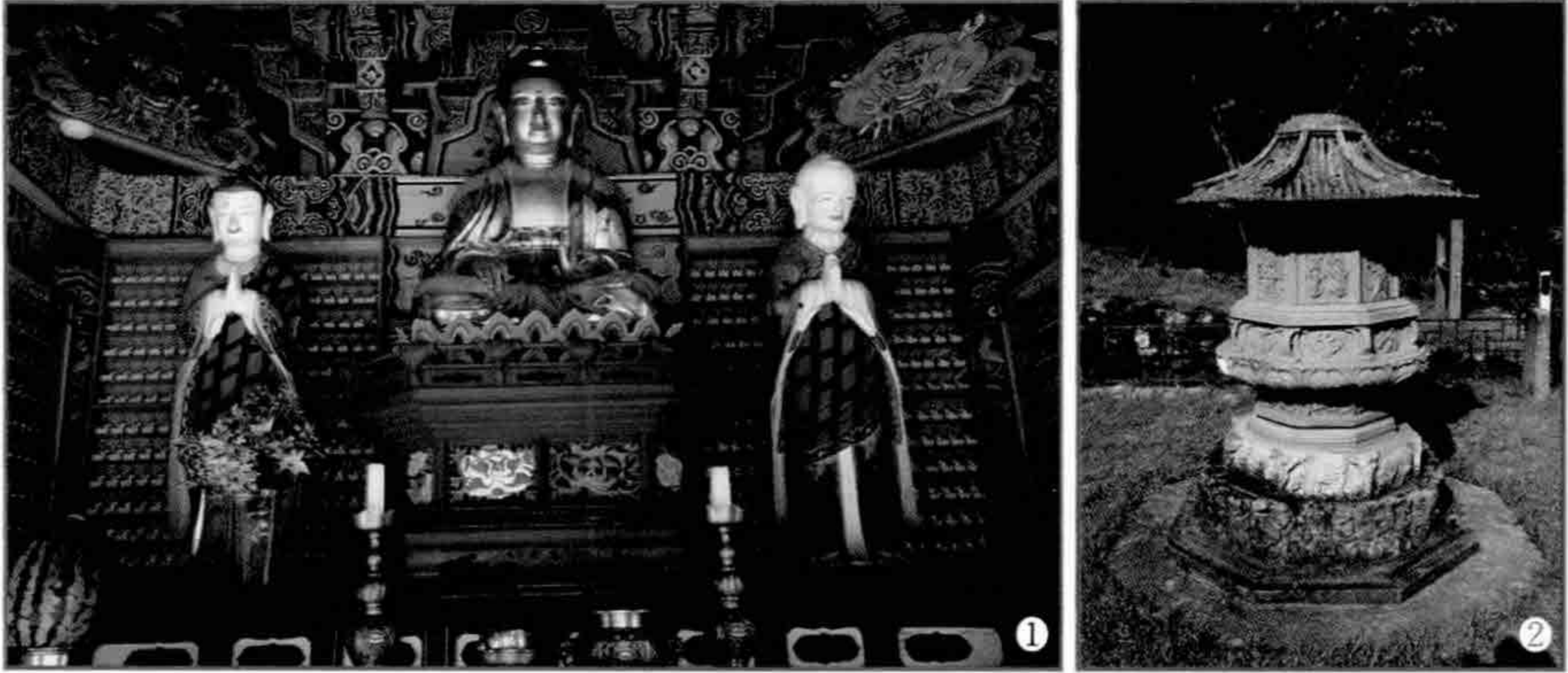


고즈넉한 산사로 떠나는 여행, **전남 화순**

9월은 여름의 그림자가 남아있는 때이다. 낮 동안 내리쬐는 따가운 햇살에 여름인가 싶다가도 선선해진 저녁바람에 이미 코앞까지 가을이 다가와 있음을 알게 되는 것.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한가위가 있어 농부들의 얼굴에 함박웃음을 주고, 일 년 내 찾아뵙지 못했던 부모님을 찾게 하는 것도 9월의 역할이다. 이처럼 마음이 넉넉할 때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고즈넉한 산사에서 즐기는 가을 여행. 혼자 또는 함께 떠나기 좋은 호젓한 여행이 될 것이다. 글과 사진 한은희(여행작가)





① 쌍봉사 삼층목탑에 모셔진 아난존자, 석가모니불, 가섭존자 ② 쌍봉사 철감선사탑

화순군 이양면 증리 사동마을에 자리한 쌍봉사는 삼층목탑을 대웅전으로 가진 통일신라 때 사찰이다. 작지만 균형 있게 지어진 삼층목탑은 보물로 지정되어 있던 건물이었으나 1984년 신도들의 부주의로 촛불이 넘어져 불타 없어지면서 보물에서 해제되었다. 지금의 대웅전은 1962년 문화재관리청의 해체수리공사시 도면을 기준으로 1986년에 복원된 것이다. 여러 번의 중수를 통해 처음 세울 당시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졌던 삼층목탑을 대웅전을 처음 지을 당시의 기법인 사모지붕으로 고쳐 지은 것이 특징이다.

대웅전 안에 모셔진 삼존불은 조선시대 만들어진 것으로 불이 났을 당시 인근에서 일하고 있던 농부가 달려와 업어 내 화마로부터 무사할 수 있었다 한다. 불이 꺼지고 절로 옮겨가기 위해 다시 업어보니 도저히 업고 일어설 수 없는 무게였다고. 이런 신도들의 불심을 알고 있다는 듯 얇은 미소를 띠고 선 가섭존자상은 쌍봉사를 찾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준다.

지장전 옆 산길을 따라 올라가면 사찰의 이름조차 '쌍봉'이라 부를 만큼 큰 영향을 준 철감선사의 부도와 탑비가 있다. 국보 제57호로 지정되어 있는 부도는 섬세한 조각이 돋보이는 신라시대 유물이다. 암막새 수막새 기와를 얹은 듯 정교한 지붕모양의 상부를 비롯해 탑신과 하단에 조각된 화려한 문양들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 하다. 부도 옆에는 몸돌 없이 서있는 철감선사탑비도 살펴볼 것.

신라고찰인 쌍봉사 곳곳엔 너른 그늘을 드리운 나무들이 있다. 그 아래엔 평상이 놓



③ 운주사 감실안에 모셔진 부처님이 특이하다.

여 있어 지친 발길을 쉬어갈 수 있다. 절 안 약수터에서 약수 한 잔 받아 마시고 평상에 앉아 쌍봉사의 풍경을 누리기에 제격이다.

쌍봉사는 별도의 입장료나 주차비를 받지 않는다. 발우공양과 단청체험, 새벽예불 등으로 구성된 템플스테이를 운영하고 있으니 사찰에 머물기를 원한다면 하루쯤 머물러 가도 좋겠다.

화순군 도암면 대초리에 자리한 운주사는 화순을 대표하는 관광지이다. 풍수지리에 능했던 도선국사가 하룻밤 안에 천불천탑을 세우고자 하늘에서 석공을 데려와 공사를 했다는 이곳에 남아 있는 탑과 불상의 수는 석탑 21기, 석불 93기란다. 이곳에 이처럼 많은 탑을 세워 인근 사찰들엔 석탑이 없다고, 이처럼 많은 탑과 불상을 가진 운주사 경내를 잘 볼 수 있는 곳은 대웅전 오른쪽으로 이어지는 산길을 올라 만나는 불사바위이다. 도선국사가 앉아 불사를 지휘했다는 이 바위에 올라서면 운주사와 인근 산맥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운주사를 대표하는 불상은 대웅전을 등지고 서서 오른쪽으로 이어지는 산 중턱의 와불이다. 와불이 일어서는 날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미륵신앙을 품은 와불은 옆

으로 누워 있는 모습이 아닌 앉은 모습을 하고 있다. 때문에 조각을 해놓고 미처 일으켜 세우지 못한 좌불로 보는 견해도 있다.

와불에서 내려오는 길에 눈여겨 봐야할 것이 있다. 동그랗게 잘라진 7개의 바위가 북두칠성 모양으로 배열되어있는 칠성바위이다. 실제 하늘에 떠있는 북두칠성과 그 배열은 물론 빛의 밝기에 따른 돌의 크기까지 같다고, 선조들의 천문에 대한 지식을 미루어 짐작해볼 수 있는 공간이다.

화순군은 오전 10시30분부터 12시까지, 오후 2시부터 3시30분까지 문화해설사와 함께 사찰을 돌아보는 운주사 해설프로그램(061-374-0548)을 운영한다. 운주사 관람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고 입장료는 어른 2천500원, 청소년 1천500원, 어린이 1천원이다. 별도의 주차료는 없다. †



④ 운주사 와불 앉은 모습을 하고 있어 조각을 해놓고 미처 일으켜 세우지 못한 좌불로 보는 견해도 있다.



여 / 행 / 정 /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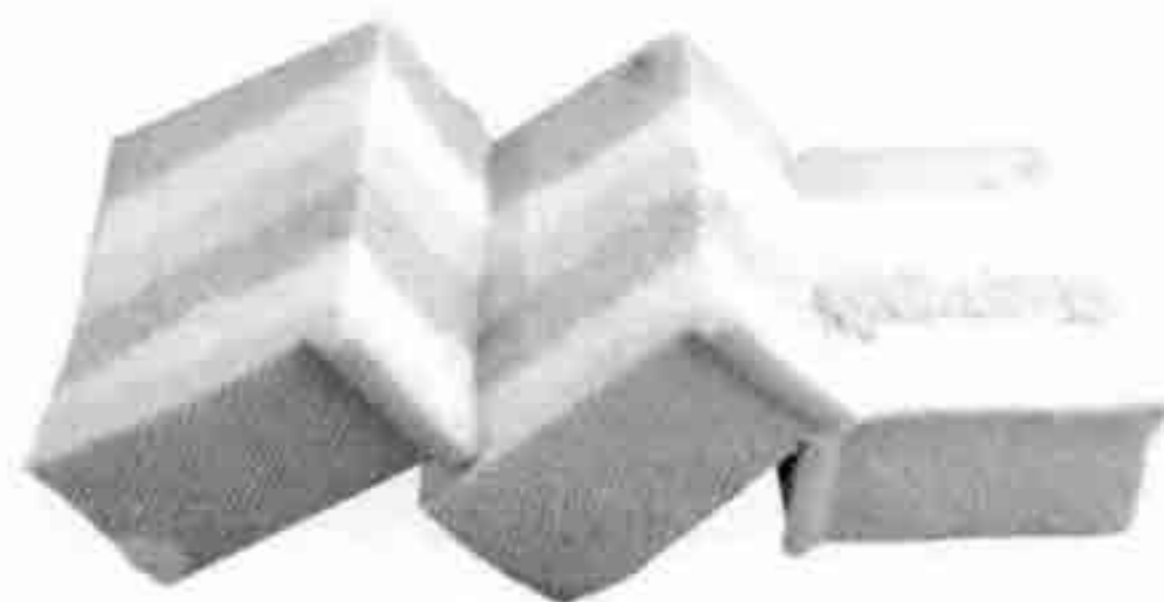
찾아가는 길

호남고속도로 동광주IC-제2순환도로 소태IC-22번국도 화순방면-너릿재 터널-화순읍-화순중앙병원 사거리에서 우회전-29번국도 따라 능주, 춘양, 이양을 거쳐 보성방면으로 가다 매정리 쌍봉사(문의 061-372-3765, www.ssangbongsa.com) 입구에서 843지방도 따라 좌회전 진입하여 가면 쌍봉사이다. 쌍봉사에서 29번국도 따라 화순읍 방향으로 가다 세청리에서 24번 군도를 따라 도암면 방향으로 가면 지월리에서 818번 지방도와 만난다. 운주사(문의 061-374-0660, www.unjusa.org) 이정표 따라 좌회전 진입해 용강리에서 우회전하면 운주사이다.

맛집안내

화순군에는 유난히 두부집이 많다. 그중 도곡온천 인근의 색동두부(061-375-5066)와 달맞이흑두부사랑(061-375-

색동두부▶



8465)이 대표 맛집

이다. 남면의 전원식당(061-372-6004)은 다슬기탕과 다슬기수제비(6천원)로 유명한 집. 사평기정떡집(061-372-6522, www.sapyong.com)은 쌀을 발효시켜 만드는 증편전문떡집이다. 4kg 1상자가 1만원이다.

잠잘 곳

도곡면 천암리 원화리 일원의 도곡온천지구 내에 숙박장소들이 밀집되어 있다. 그 중 하우스모텔(061-375-7779, www.house-artmotel.co.kr)은 한국관광공사가 굿스테이로 지정한 숙박업소이다. 도곡온천에서 솟아나는 온천수가 각 객실로 공급된다. 객실 내에 황토볼과 대나무숯을 비치해 맑은 공기를 유지하는 것도 특징. 4인 가족이 함께 머물 수 있는 가족객실 이용료가 1박에 4만원이다.